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28 호 | 2017.10.31

딜로이트 안진그룹, 임팩트데이 맞아 임직원 봉사활동 (이데일리, 9.13)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지난 9월 13일 전사 자원봉사활동인 '2017 임팩트데이(IMPACT Day)'를 실시했다. 임팩트데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자'라는 취지로 전세계 150여 개 딜로이트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례행사다.

올해 임팩트데이 당일에는 중양어촌계 어촌 마을 방문, 여의도 환경 정화, 후원금 전달,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 시설 방문, 장애우와 사파리 월드 체험학습 실시, 경중치매 어르신 보호시설 봉사 참여, 단체 헌혈,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배식 등 10개의 봉사활동이 여의도 일대와 지방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오전, 딜로이트 안진 임직원들은 One IF 빌딩 입구에서 딜로이트의 상징인 그린닷(Green Dot)을 연상케 하는 녹색 햇사과를 회사원들과 행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이밖에도 임직원이 기부한 책을 모아 한글 교육자료가 필요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전달하는 ‘딜로이트 책 나눔 카’ 행사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드림 딜로이트’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 역시 강화했다.

이날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출정식에서 “전문가로서 사회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건강한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긍정의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딜로이트 취지와 정신이 임팩트 데이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며 “딜로이트 안진그룹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에이스타워, 매각 주관사에 ‘딜로이트 안진’ (더벨, 9.18)



삼성생명이 딜로이트 안진을 내세워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오피스빌딩인 ‘에이스타워’ 매각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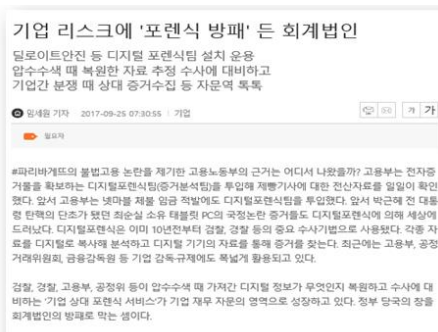
삼성생명은 딜로이트 안진과 함께 빌딩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17년 8월 말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며 준비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에이스타워 매각 거래 완료시 호가가 1900억 원 정도를 웃돌 것이며, “17년 10월 셋째 주 이후에 입찰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리스크에 ‘포렌식 방패’ 든 회계법인 (서울경제, 9.24)

딜로이트 안진은 현재 재무자문 본부에 50여명 규모로 이루어진 포렌식팀을 운영 중이며, 이 팀은 컴퓨터 기록을 추정할 수 있는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부서다.

실제로 딜로이트 안진 포렌식팀은 증거 복원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지운 문자나 웹상에서 주고받은 대화, 검색 후 삭제한 파일 흔적, 신용 카드 등 전자기기를 통해 결재한 내역과 시간, 그리고 만난 사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술력은 크게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의 증거물 찾기를 가능케 하며 향후 글로벌 간 법정 분쟁에서 필요한 증거의 복원 또한 가능케 하기 때문에 미래에 촉망되는 기술력이기도 하다.



딜로이트 안진 디지털 포렌식팀	
소속	재무자문부 내 디지털 포렌식팀
규모	50여명
서비스 내용	-원할 경우 복원된 증거 추정 -스마트폰, 웹 등에서 삭제된 흔적 및 신용카드 등 전자기기 결재 내역시간 등 확인
비즈니스 포렌식 시간 규모	2018년 23억 원에 추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안진-삼일-삼정 '박빙' 선두경쟁 (더벨, 9.29)

안진-삼일-삼정, '박빙' 선두 경쟁

[thebell League Table/M&A 회계자문] 안진, 하만 딜 덕에 선두 유지...삼일-삼정, 선두 탈환 사정권

윤동희 기자 | 공개 2017-09-29 16:18:27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9일 15: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이 9조 원 짜리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딜 자문 덕에 2017년 3분기(누적) M&A 회계자문 리그테이블에서도 선두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삼일PwC와 삼정KPMG가 무섭게 추격 중이다. 특히 삼일은 탄탄한 스몰캡 딜 파이프 라인을 무기로 압도적인 거래 자문 건수를 기록하며 안진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집계한 2017년 3분기 M&A 회계자문 부문 리그테이블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딜로이트안진이 완료 기준 조정점유율 27.96% (13조 5308억 원, 24건)으로 1위에 올랐다. 상반기 33.85%이던 점유율이 줄어들며 2위와 0.43%포인트의 근소한 격차로 가가스로 선두를 유지했다.

상반기 전체 회계자문 거래 규모는 34조 8899억 원으로 금액기준으로는 딜로이트안진이 38.78%의 점유율로 1위다. 9조 원에 달했던 삼성-하만 거래가 지난 3월 완료되면서 부동의 선두 자리를 예약해 놓는 듯했다. 지난해 개시된 1조 원 딜인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의 거래가 9월 마무리(30일 예정)되면서 공을 세웠지만 3분기에 경쟁사의 절반 수준으로만 딜을 수임하면서 2위와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더벨은 딜로이트 안진이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딜 자문으로 9 조 원 규모의 M&A 회계자문을 통해 선두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영업정지, 대표 교체 등 여러 목직한 사건을 겪었지만, 회계 빅 4 의 경쟁사인 삼일 이나 삼정 보다 선두를 달리는 결과를 올렸으며 “상반기 전체 회계자문 거래 규모는 34 조 8899 억 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딜로이트 안진이 38.78% 점유율로 1 위”이고 빅 포 중 경쟁 사중 한 곳인 삼일은 올해 1 조 원을 넘기는 딜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딜로이트 안진의 선두가 더욱더 눈에 띈다고 밝혔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